

소리의 계절, 전통 본연의 아름다움을 그리다

●6월부터 전남도립국악단 그린국악 시즌3

‘춘향가’ 이별가·‘흥보가’ 제비노정기 등 ‘판소리 연창’ 어깨춤 들썩...태평무·화선무·진도북춤까지 무대 다채

무·흥부리·진도북춤 등 전남도립국악단 무용부 단원들이 오랜 시간 수련하고 체득해온 대표 춤사위로 무대를 수놓을 예정이다.

한 주 건너편 8월10일에는 ‘전통 기악 시리즈’가 진행된다. 가야금 산조부터 해금, 거문고, 대금, 아쟁에 이르기까지 전남도립국악단 기악부 단원들만의 채색으로 뒷입힌 하트가락이 무더운 여름 관객들에게 시원한 선율을 선물한다.

이밖에도 시즌3 주제인 ‘소리의 계절, 우리의 소리를 그리다’에 걸맞은 국악 공연들도 준비돼 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가야금 병창 ‘화룡도’, 국악 실내악 ‘적념’, ‘간(間)’, 이면가락 시나위 합주 ‘Hunger Stones’ 등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우리 소리에 집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용안 예술감독은 “소리의 분량에서 그동안 못 말했던 전통 본연의 공연들을 제대로 선보이겠다는 약속을 통해 내딛는다”며 “우리 전통을 울골이 지키며 오늘과 미래를 그려나가는 전남도립국악단과 함께 격려하는 마음으로 동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다. 예매 문의 061-981-6923.

/최명진 기자



남아시아 춤 문화, 인도 고전무용 만나볼까

오늘 ACC ‘남아시아 춤의 성소’ 전시 연계 강연·공연

남아시아 춤 문화와 인도 고전무용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4일 아시아문화박물관 극장3에서 ‘남아시아 춤 문화의 관문 인도 고전무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과 공연을 진행한다.

오는 21일까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남아시아 춤의 성소: 리미널 스페이스’는 힌두사원의 춤 유적지를 통해 남아시아의 전통춤을 조망하는 전시다. 이번에 열리는 강연과 공연은 ‘남아시아 춤의 성소’와 연계해 관객에게 전시 이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기획됐다.

강연에서는 ACC 연구자 방문프로젝트의 초빙연구자이자 전시기획자인 최해리 박사가 남아시아 춤 문화를



왼쪽부터 강연자 최해리 박사, 카타크 공연자 소날리 로이, 시타르 연주자 한샘바위

이해할 수 있는 인도 고전무용과 2013년 수행한 인도 현장조사를 소개하며 전시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다룬다.

이어 주한인도문화원 협조로 인도 무용 강사 ‘소날리 로이(Sonali Roy)’가 8대 인도 고전무용 중 하나인 ‘카타크(Kathak)’ 공연을 선보인다. 현지에서 인도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션 한샘바위의 인도 전통 현악기 ‘시타르(Sitar)’ 연주도 감상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 공개구입

내일까지 서·남아시아 유물 대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5일까지 서·남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유물 매도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서·남아시아 권역 아시아 전통문화를 비롯해 전통의복, 음식문화, 전통음악, 공연, 공예, 종교, 신화·설화, 도시문화, 건축, 세계유산 등 다양한 주제 등이 주요 구입 대상이다.

구입한 자료와 유물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 영구 보존돼 박물관 전

시를 비롯한 교육·연구·문화사업 등에 활용된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은 2017년 문화전당 내 등록된 전문박물관으로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및 학술적 조사·연구 등을 위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를 지속 수집해왔다.

매도 희망자는 신청서와 유물사진 등 관련 서류를 ACC 연구조사과 자료관리팀 기증담당자 이메일(yeopo8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광주과학관 ‘2024 다이노 월드’ 인기몰이

생동감 있는 전시품·다양한 체험 만족도 높여

국립광주과학관 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개막한 이번 특별전은 살아있는 공룡시대로 온 듯한 움직이는 공룡 전시품과 함께 지구의 탄생부터 공룡시대 스토리를 과학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탐구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다. 가족 단위 관람객과 유치원 및 학교

단체방문이 잇따른 가운데 지난 주말 약 5천여명의 관람객이 전시를 찾으며 과학관 개관 이래 일일 최다 특별전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이번 전시는 ▲다이노 타임머신 ▲다이노 뮤지엄 ▲다이노 파크 ▲다이노랩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으로 구성됐다. 움직이는 공룡 모형과 실물화석,



다이노랩 교육 체험(왼쪽)과 다이노 뮤지엄 전시 전경

한반도와 호남지역 공룡과 함께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기획한 문기현 연구원은 “생동감 있는 공룡 모형과 다채로운 체험

으로 관람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공룡특별전 ‘2024 다이노 월드’는 오는 9월1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토스카’·‘라 트라비아타’ 주·조연 오디션

시립오페라단, 8일까지 공모

광주시립오페라단이 2024 하반기 정기공연 출연자 공개 오디션을 통해 주·조연 출연자를 선발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9월6-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과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10월25-26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지원 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생 ▲

관련 분야 유학 경험자 ▲오페라 작품에 경력이 있는 자로 오는 8일까지 전국 단위 공개 모집한다.

실기 심사는 오는 17-18일 광주시립 오페라단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응시 곡은 작품별 ▲지망 배역 아리아 1-2곡 ▲자유 아리아 1곡 등이다. 필히 개인 반주자를 동반해야 한다.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지금까지 성악도들이 쌓아왔던 기량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